12대 신산업 일자리 2025년까지 38만개 생긴다

미래형 자동차·첨단 신소재·로봇 등…신산업 일자리 창출 전문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부가 작년 12월 선정·발표한 12대 신산업에서 2025년까지 38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12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VR·AR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망과 신산업 투자기업의 일자리 관련 성공 사례 및 애로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산업 관계자들은 빅데이터,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투자기업 대표들은 새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81만개)과 함께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12대 신산업에서 대다수 일자리(38만개)가 창출될 전망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2대 신산업 종사자수는 2015년 20만명에서 2020년 36만2000명, 2025년 58만5000명으로 연평균 1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종사자 중에서 연구개발·품질검증·생산기술 등 전문성을 보유한 산업기술 인력의 일자리 비중이 2015년 40% 수준에서 2025년 5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변화 및 신기술 발전에 따라 사무직·서비스직 등 지원인력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고급 기술인력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됨을 의미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이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게 변화하고 있어, 향후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설계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규제개선과 집중지원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유발형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R&D 자금 집중지원(5년간 7조원), 네거티브 방식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의 산업인력 교육·양성 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운 말 중시하는 행복 교육 전환

산곡여중 부모님께 배우는 밥상머리 교육

산곡여자중학교(교장 심순옥)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바른 생각, 바른 행동, 고운 말을 중시하는 행복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운동인 교내 밥상머리 교육 인증 샷 대회를 지난 5월 8일부터 15일까지 1학년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부모님께 배운 밥상머리 교육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교내 밥상머리 인증 샷 대회' 양식에 작성해 제출하는 이 대회는 가족 사이의 강한 유대감과 행복감이 성적 향상뿐 아니라 청소년 우울감 예방에도 크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착안해 추진된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학생들은 밥상에서 텔레비전을 끄고 부정적인 말이 아닌 공감과 칭찬을 건네는 이런 시간이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했다.

1학년 송나연 학생은 "어머니께서 손수 음식을 준비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먹고 정리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행복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심순옥 교장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식사자리를 통해 기본적인 예절과 인성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충북대 평생교육원, 지역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강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 평생교육원이 지역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선다.

충북대 평생교육원은 2017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문 인력 양성을 그 목표로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과 '전문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 5월 20일 개강했으며, 충북 소재 기업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제조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돕는 48시간 집중 프로그램이다. 생산 장비 및 설비 등에서 수집되는 자동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량 및 품질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제조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5월 22일 개강한 '전문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취득과정'은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및 일반여성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72시간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격취득 이후에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의 연계를 통해 관련분야로의 학습자 취업 연계 및 매칭이 이루어진다.

이재은 충북대 평생교육원장은 "두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사회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일반여성구직자의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동신대, 감사의 달 기념 '메디스파 Thanks Day' 운영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 웰에이징-메디스파 창의인력양성사업단(단장 김계엽 물리치료학과 교수)은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신대학교 미화원 및 나주시민 43명을 초청해 '메디스파 Thanks Day' 행사를 개최했다.

사업단 참여 학과인 물리치료학과와 뷰티미용학과 재학생 40여명은 이날 행사에서 ▲핸드마사지 힐링테라피 ▲헤드스파, 풋스파 ▲아쿠아테라피 ▲헤어염색, 네일컬러 ▲체질량(InBody), 두피 측정 등 선진적인 메디스파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 받았다.

김계엽 단장은 "학생들이 그동안 전공수업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활용해 실무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항상 학교를 위해 힘써주신 동신대학교 미화원과 나주시민에게 힐링 메디스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업단 인재상에 맞는 도덕적 인성과 실용적 전문성을 갖춘 MASTERTM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덕원 기자 sdw@

여름 폭염 대비…무더위 쉼터 4만여곳 운영

연평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여름 폭염에 대비해 정부가 119폭염구급대와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등을 운영한다. 국민안전처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폭염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범정부 폭염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연간 평균 폭염일수는 80년대 8.2일, 90년대 10.9일에서 2010년대 13.5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여름철 기온도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폭염일수도 10.5일 이상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11~2016년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105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축 210만 3000 마리, 어류 612만 3000 마리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관리자에게 맞춤형 SMS 발송,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보호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구급차 1352대와 펌뷸런스 1203대로 구성된 119폭염구급대 등 응급구급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 530곳을 지정·운영한다.

건강 짱! 마음 짱!

인천가좌여중 '금연 선포식', '2017학년도 체육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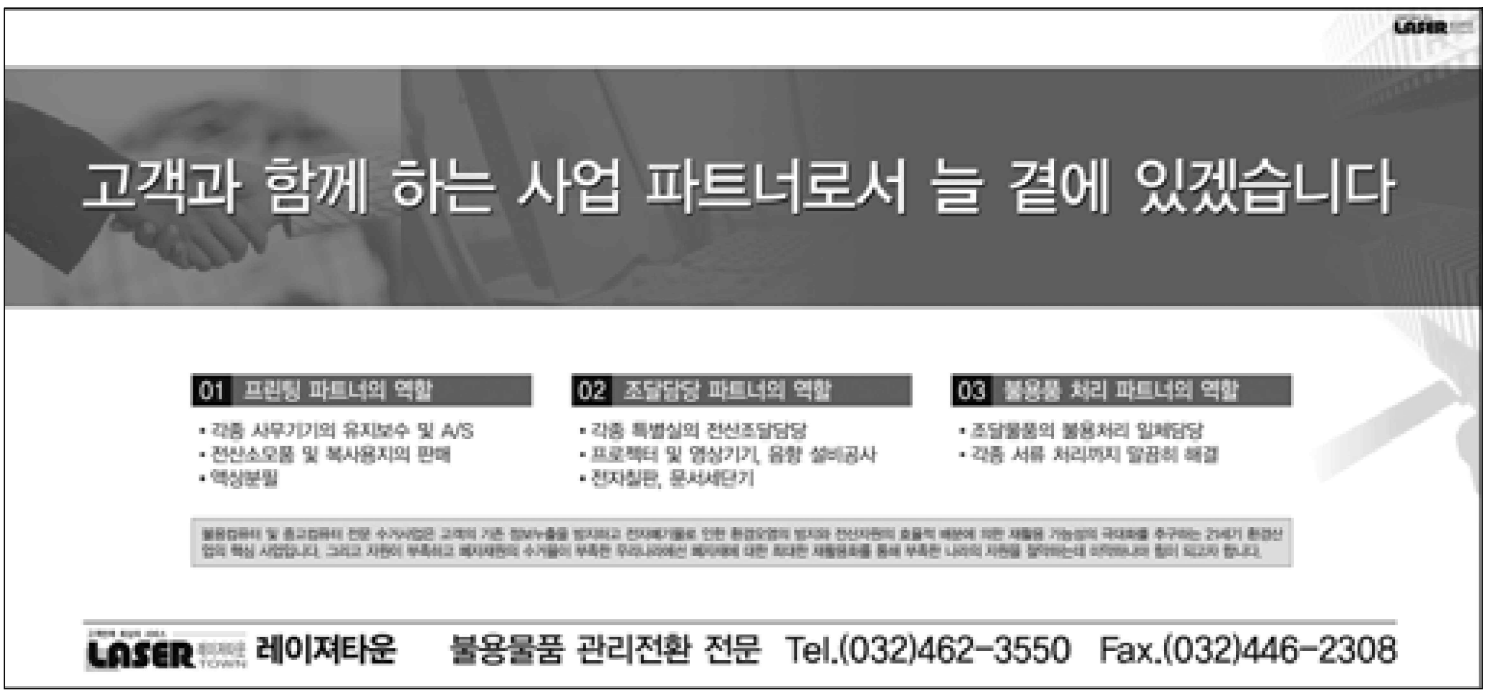
인천가좌여자중학교(교장 이종태)는 5월 4일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의 하나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선포식'과 함께 '2017 건강 짱! 마음 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7 건강 짱! 마음 짱! 체육대회' 식전행사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전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 선포식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어떠한 흡연의 유혹도 단호히 거부하며 학생 자신과 가족,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교생이 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대사가 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학년별 8자 마라톤 줄넘기, 미션수행 이어달리기, 개인 줄넘기, 600m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6개 종목의 경기가 다양하게 펼쳐졌으며, 학급응집력을 보여주는 학급응집력 보이기, 응원, 질서상 등 각종 시상 등도 함께 열렸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한마음 달리기가 마련돼 한마음 교육공동체 구축의 어울림 한마당이 됐다.

행사를 담당한 김영철 교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흡연 예방과 금연 실천을 다짐하고,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